



“살려고 하니 잘 죽어야 겠더라”

KIA 타자 이명기

전반기 타격 부진에 마음고생
한달전 2군서 복귀 ‘심기일전’
복귀 후 9타점·16득점 상승세
“스윙 제대로 해야 결과 좋아”

“행운의 2루타”를 떠올리면서 “운도 따르고 있다”며 웃은 이명기는 “볼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무작정 손이 나갔다면, 지금은 날아오는 공을 보면서 조금씩 중심에 맞춰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명기는 “확실히 전반기보다는 감이 좋다. 중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그대로 빗맞아서 땅볼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을 더 차분하게 보고, 배트 컨트롤도 좋아졌다. 타석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결과를 내기 위해 이명기는 연습시간부터 전투 태세에 돌입하고 있다. 이명기는 “예전에는 연습하면서 찢어서 타격을 했다. 하나 둘 하면서 배트를 냈는데 지금은 잡동작을 줄이고 바로 공을 때리고 있다. 그만큼 공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내 스윙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며 “연습은 시합을 위한 워밍업이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인 만큼 훈련할 때부터 좋은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잘 죽지 못해서 불만”인 이명기다. 이명기는 “공을 끝까지 보고 중심에 맞춰서 시원하게 공을 때리는 게 내 스타일인데 아직 완벽하게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매 타석 안타를 만들 수는 없지만, 남점이 될 수 있게 아 웃이 되어야 한다. 죽더라도 스윙 제대로 하고 죽어야 한다. 죽더라도 잘 죽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살기 위해서 잘 죽어야 한다’는 이명기. 위기에 서 벗어난 이명기가 위기의 팀까지 구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독

호투 임기영 “아직도 배가 고파요”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 KIA는 지난 8일 넥센과의 원정경기에서 연장 10회 승부 끝에 6-7 끝내기 패를 당했다. 10회 2사에서 김규민의 타구를 쫓던 우익수 최원준이 공을 뒤로 빠트리면서 2사 3루가 됐다. 그리고 김재현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KIA의 패가 확정됐다. 9일 안방으로 돌아와 롯데를 상대하게 된 김기태 감독은 전날 최원준의 실책에 대해 “나도 선수 시절에 애러 많이 했고, 앞으로도 (최원준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애러를 200개 정도는 할 것이다. 그중에 하나일 뿐이다. 한 경기 한 경기 말고 시즌을 가지고 길게 봐야 한다”고 선수의 기를 살려줬다. 최원준도 “빠른 타자라서 너무 의식했다. 수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주변 이야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성격이다. 내가 부족해서 실수한 것이다. 내가 잘해서 팀이 이기는 날도 있을 것이다”며 “스윙에는 자신

감이 생겼다. 지난해 좋았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연습했다.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저도 막내니까요 = 나이순으로 가장 먼저 덕아웃에 등장한 좌완 하준영과 우완 유승철. KIA는 9일 평소보다 1시간가량 늦게 훈련을 시작했다. 전날 넥센과의 연장 승부 탓에 4시가 다되어 광주로 내려오면서 훈련보다는 휴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늦게 시작된 훈련, 고졸 신인 하준영과 2년 차 유승철이 투수조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하준영이 아이스박스에 음료수를 가득 채웠고, 유승철은 아이스박스와 함께 공을 쟁겼다. 유승철은 “(하준영이 있지만) 저도 막내입니다”라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선배들에 앞서 먼저 그라운드로 향했다.

▲그래도 성적이 안 좋으니까 = 아직도 배가 고픈 임기영이다. 지난 7월 31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6.1이닝 1실점의 호투로 반전을 이룬 임기영은 지난 8일 넥센전에서도 5.2이닝 1실점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 박병호에게 홈런을 맞았지만 두 경기 연속 안정된 피칭을 하면서 남은 시즌과 야수안개 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임기영은 “넥센 타자들이 까다롭다. 한방들도 있고 너무 잘 던지려다 보니까 볼넷도 3개를 기록했다”며 “전반기 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기는 했지만 성적이 안 좋으니까 대표팀 부담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래도 대표팀에 가기 전에 한 경기가 남았다. 일단은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그레아 야수안개임에서도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

EPL 내일 개막...다시 잠 못 드는 밤

유럽축구 스페인·이탈리아·독일리그도 순차 열전
월드컵 스타 총출동...손흥민 등 태극전사 활약 ‘관심’

축구 팬들이 기다리던 유럽축구 2018-2019 시즌이 드디어 막을 올린다. 오는 11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시작으로 프랑스 리그앙(11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18일), 이탈리아 세리에A(19일), 독일 분데스리가(25일)가 차례로 열전을 시작한다. ◇맨체스터 시티, 10년 만에 2연패 도전...호날두는 세리에A 데뷔 유럽 5대 리그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는 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로 포문을 연다. 지난 시즌 독주 체제를 펼친 맨체스터 시티는 2006~2009년 3연패한 맨유 이후 10년 만에 리그 2연패에 도전한다. ‘득점왕’ 무함마드 살라흐에 킬리언 베케르와 공격수 제르단 샤키리까지 가세한 리버풀이 맨시티의 독주를 저지할 대항마다. 프리시즌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불화설로 빠져 댄 맥유와 사령탑이 바뀐 첼시, 아스널은 시즌 초반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프리메라리가와 세리에A는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큰 변화를 겪었다. 프리메라리가는 떠나 보냈고, 세리에A는 새로 맞았다. 라이벌이 사라진 리오넬 메시의 FC바르셀로나는 2연패에 도전한다. 양투안 그리에즈만이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네딘 지단 감독과 호날두를 보내고 훌렌 로페테기 감독과 티보 쿠르투아 골키퍼를 수혈한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의 2연패를 저지하고 나선다.

‘저미손’ 잔류이치 부폰을 보냈지만 호날두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유벤투스는 8시즌 연속 우승 컵을 사냥한다. 네이마르와 킬리안 음바페에 부폰까지 가세한 파리 생제르맹과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를 붙잡은 바이에른 뮌헨도 각각 프랑스, 독일 리그 패권 지키기에 나선다. ◇손흥민·기성용 등 기대되는 ‘코리아 유럽파’ 한국 팬들에게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가 관심사다. 아시아 프리미어리그의 기록을 잇달아 새로 쓰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이 누구보다 기대를 모은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리그 37경기에 출전해 12골을 넣어 득점 랭킹 10위에 올랐다. 기성용은 뉴캐슬로 유니폼을 바꿔 입고 도전을 이어간다. 뉴캐슬과 토트넘은 개막전 상대여서 기성용과 손흥민이 시즌 첫 경기부터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에선 권창훈(디종)과 석현준(랭스) 두 오가 두 시즌째 함께 리그앙 무대를 누빈다. 분데스리가에선 구자철(아우구스부르크)이 독일에서의 아홉 번째 시즌을 시작한다. 지난 시즌 2부 다름슈타트로 이적했던 팀 동료 지동원도 복귀했다. 2부 홀슈타인 길에 합류해 데뷔전부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재성은 K리그 MVP로서의 활약을 유럽에서 이어간다. 프리시즌에 1군 무대를 밝은 기대주 정우영(바이에른 뮌헨)과 이강인(발렌시아)도 정규리그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선 활희찬이 잘츠부르크에서 세 번째 시즌에 나선다. /연합뉴스

‘무패 행진’ 광주 FC, 다음 제물은 ‘아산’

K리그2 23R 13일 홈경기
정영총·펠리페 등 공격수 고른 활약
상승세 잇고 선두권 발판 마련 총력

‘패배를 잊은’ 광주 FC가 2위 아산 무궁화를 힘으로 불러들여 상승세를 이어간다. 광주는 오는 13일 오후 8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아산과 2018 K리그2 2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후반기의 다크호스다. 후반기 시작 이후 7경기에서 3승 4무를 거두며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4위로 올라섰다. 3위 부산 아이파크와의 승점도 2점 차로 좁혀졌다. 만족하기에는 이르다. 부천 FC가 승점 2점에 뒤진 5위로 광주를 쫓고 있다. 6위 수원 FC와의 승점 차도 5점밖에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광주가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승점 8점 차 밖에 있는 2위 아산과의 이번 경기가 중요한 이유다. 광주는 상승세를 잇고 선두권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선두권과의 승점을 5점 차로 좁힐 수가 있다. 광주는 앞선 대전전에서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아쉽게 1-1로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소독은 있었다. ‘에이스’ 나상호가 야수안개임 출전을 위해 자리를 비웠지만 정영총이 좋은 컨디션으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나상호의 공백을 잊게 했다. 또 브라질 듀오 펠리페와 두아르테 역시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 올리면서 광주의 공격 옵션에 경유의 수가 늘었다. 아산은 K리그2에서 가장 좋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5승 5무를 기록하면서 성남FC와 치열한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7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인 4위 광주 FC가 13일 안방에서 3위 아산 무궁화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17라운드 아산과 맞대결에서 종료 직전 동점골을 넣은 뒤 환호하는 정영총. (광주 FC 제공) 그러나 지난 부산전에서 ‘수비의 핵’ 이주용이 경고 2회로 퇴장당했다. 주중에는 주전 선수들이 전북 현대와 FA컵 16강(2-1승)을 치르며 체력적 부담도 크다. 충분한 휴식으로 체력을 채운 광주는 역동적인 플레이로 몸이 무거운 아산을 공략해야 한다. 올 시즌 아산을 상대로 1승 1무 무패를 거둔 자신감도 긍정적이다. 광주가 아산을 잡고 선두권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